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송 수 원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277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Bernstein의 이론을 기초로 이경희(1993)가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Spivack의 이론을 기초로 박찬옥(1986)이 제작한 도구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이원변량분석, 적률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긍정적, 부정적 해결방안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주요어: 언어통제유형, 대인문제 해결능력, 긍정적·부정적 해결사고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석사

2) 교신저자: 정옥분,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E-mail: obchung@korea.ac.kr

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 사회생활, 그 가운데서도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가 날로 복잡하게 변화하는 요즈음에는 그 변화 속도만큼 대인관계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누구나 쉽게 갈등과 문제의 발생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도한다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결과에 있어 개인차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지능력이 필수적이며, 대인관계에서 갈등 및 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Asher & Renshaw, 1983). 1970년대 초반부터 지능(IQ)과 별개의 개념으로 사회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 같은 견해에 따라, 아동의 사회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 중 주된 것은 조망능력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줄 아는 조망능력은 대인문제 능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망능력만으로는 대인문제 해결능력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에 부족하다. Pellegrini(1985)는 조망능력은 대인문제 해결 능력에 비해 아동의 여러 측면의 사회적 역량과 상관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문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박찬옥, 1986).

대인간 문제해결 과정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Spivack(Spivack & Shure, 1978)은 대인간 문제해결을 일단의 능력과 단계들로 정의하였다. 문제의 인지, 대안적 해결방안 강구,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여러 단계의 구분, 사회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고려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인문제 해결 사고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Spivack은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능력이라고 하였다.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제시한 Spivack은 4가지 하위사고 - 대안적 해결 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 -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대안적 해결사고는 하나의 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생성해내는 사고능력이며, 결과예측 사고는 수행한 대인적 행동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결과들을 예측해내는 사고 능력을 뜻한다. 또한 원인적 사고는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동기나 원인을 통찰해내는 사고 능력이며, 수단-목적 사고는 주어진 대안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여 단계적으로 수단을 사용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사고 능력을 뜻한다. 또한 사회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대안적 해결사고와 수단-목적 사고를 긍정적 해결사고와 부정적 해결사고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결과들(Spivack & Shure, 1970; Shure, Spivack & Jaeger, 1971; Shure, Newman & Silver, 1973; Platt, Spivack, Altman, Altman, Peizer, 1974)에 따르면 각 하위사고들은 동일한 내용의 사고과정이 아닌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상보적 기능을 함으로써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통합되기도 한다.

Spivack은 양육자들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며, 아동들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대인적인 문제장

면에 부딪혔을 때 아동이 사용하는 해결방안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대인문제 해결능력이 아동 자신의 지능, 연령, 성, 사회경제적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지시킨 바 있다.

아동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 등을 획득하여 책임감있는 사회의 성원이 되어간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 훈육 등의 사회화 과정은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언어로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양식, 잘못된 행동을 조절하는 언어 훈육방법,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동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여겨진다.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언어 영향을 강조하여 사회 언어학적 이론을 제시한 Bernstein(1971)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통제와 양육방식의 유형이 부모의 언어 형태를 결정한다고 보고 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Bernstein(1971)은 언어와 사회적 관계를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용하는 통제와 양육방식에 관련시켜서, 부모가 아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어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어를 3가지로 분석하였다. 그는 언어유형을 부모가 아동을 통제할 때 신체적, 언어적 강제나 명령만을 사용하는 명령적 통제(예를 들어, 밤에 숙제한다고 이러면 혼날 줄 알아라고 통제함)와 지위에 근거한 규범에 따른 지위지향적 통제(예를 들어, 동생이 형한테 대들며 돼?라고 통제함) 그리고 아동의 특성에 따라 역할재량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특성, 의도, 동기를 중요시 하는 인성지향적 통제유형(예를 들어,

책을 아무 곳이나 두니까 이렇게 너도 애를 먹지?라고 통제함)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언어체계 및 어법을 배운 아동은 지적, 사회적 특성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Bernstein의 사회언어학적인 이론이 소개되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김리은, 1996), 아동의 내외통제성(서선주, 1988)과 관련이 있고,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통제방식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력(나수진, 1996; 전계순, 1994)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대부분 어머니의 영향에 중점을 두어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관한 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Bee(1989)가 오늘날 가족 기능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부모 역할에 대한 기존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동발달에 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주변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를 평가한 행동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부모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최경순, 1992; 이경희, 1993; Kagan, 1971; Schaefer, 196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자신의 평가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파악한다고 보고,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4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나,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지적 성숙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의 발견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발달 단계로서 이에 대한 연구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버지와 아동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사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긍정적 해결사고, 부정적 해결사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소

재한 4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2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아동은 자신이 지각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아 142명(51.3%), 여아 135명(48.7%)이었다. 그리고 5학년은 155명(56.0%), 6학년은 44.0%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3.06세이며, 대부분(58.5%)이 대학졸업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으며, 대부분(59.6%)이 사무직과 행정관리직에 종사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이 평정하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검사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검사로 나눌 수 있다. 대인문제 해결능력 검사에는 대안적 사고검사, 결과예측 사고검사, 원인적 사고검사, 수단-목적 사고검사가 포함된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희(1993)가 제작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29문제로 구성되었는데, 이 질문들 각각에 대하여 세 가지 언어통제유형 즉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서 피를 부릴때, 명령적 통제유형은 ‘피부리지 말고 빨리 학교가!’, 지위적 통제유형은 ‘학생이 걸석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인성적 통제유형은 ‘걸석하면 내일 선생님 말씀을 알아 들었나?’라고 분류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29문제의 87문항(각 3가지 언어통제유형별 29문제씩 구성)은 4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응답에 대한 점수는 가장 긍정적인 견해로 표시된 부분에 4점, 가장 부정적인 견해로 표시된 부분에는 1점을 배정하여 4, 3, 2, 1로 점수화 시켰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근거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3 .95이며, 요인타당도는 .69 .87이다.

대인문제 해결능력 검사

질문지 구성.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질문지는 대인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아동이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ivack(1976)의 ICP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검사를 토대로 박찬옥(1986)이 제작한 대인문제 해결사고검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의 실생활 문제들을 가설적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으며, 네 가지 하위사고 즉, 대안적 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를 각각 별도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각 하위사고의 문제상황 모두 상대가 친구일 때, 어머니일 때, 교사일 때의 3가지 경우에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대상이 친구일 때를 예를 들어보면, 대안적 사고는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어떻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었는지, 결과예측사고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친구가 장난감을 뺏으면 어떻게 할지, 원인적 사고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친구가 화를 내는데 왜 그런지, 수단-목적 사고는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질문지 채점 기준.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검사는 아동의 반응에 따라 박찬옥(1986)이 분류한 준거에 의하여 분류하고 채점하였다. 하나의 하위검사에서 최대 10번의 적합한 반응을 하였을 경우 30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0 30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수단-목적 사고의 반응분류 준거는 대안적 해결사고의 반응분류 준거와 동일하다. 해결방안이란 주어진 대인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며 새로운 방안으로 정반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각 해결방안마다 각각 1점씩 배점하였다.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는 반응이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방안으로, 관련된 목표, 대체목표, 무관련 반응, 열거, 반복을 포함하며, 이러한 반응은 정반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수화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문제 해결사고검사의 하위변인인 대안적 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의 문항에 대한 변인별 Cronbach Alpha계수는 .90 .95이다. 그리고 대인문제 해결능력을 분석한 후에, 평정자간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의 분석결과를 놓고 채점자간 신뢰도를 살펴보았는데, 신뢰도 계수는 .98 .99이다.

그리고 본 척도는 여러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Spivack, Platt & Shure, 1976; 박찬옥, 1985).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2001년 8월 30일 9월 3일)는 강남구의 1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검사지의 일부 문항을 수

정하고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가 담임 선생님께 실시 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아동들이 질문지를 교실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들은 담임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경향

변수	구분		명령적 통제
아동의 성별	남	<i>M</i>	1.97
		<i>SD</i>	0.77
	여	<i>M</i>	1.83
		<i>SD</i>	0.66
아동의 학년	5학년	<i>M</i>	1.91
		<i>SD</i>	0.76
	6학년	<i>M</i>	1.89
		<i>SD</i>	0.65
전체		<i>M</i>	1.90
		<i>SD</i>	0.71

III.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중 지위적 언어통제유형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유형($F=3.85, p<.05$)과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유형($F=5.47,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인성적 통제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아 $M=2.65$, 남아 $M=2.49$). 학년에 따

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인성적 통제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학년 $M=2.65$, 6학년 $M=2.46$).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문제상황은 상대가 친구일 때, 어머니일 때, 교사일 때의 3가지 경우에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대상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능력 평균점수를 보면, 친구인 경우가 가장 높으며($M=13.77$), 다음으로 어머니($M=12.19$), 교사($M=11.5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각 하위사고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능력($F=10.19, p<.01$)과 각 하위사고 대안적 사고($F=6.10, p<.05$), 결과예측 사고($F=9.80, p<.01$), 원인적 사고($F=8.11, p<.01$), 수단-목적사고($F=10.87, p<.001$) 모두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를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문제 해결능력뿐만 아니라 각 하위사고들에서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의 각 하위요인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 사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표 2.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경향

변수	구분		대안적 사고	결과 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	대인문제해결 능력(전체)
아동의 성별	남	<i>M</i>	8.56	10.26	8.87	6.26	33.95
		<i>SD</i>	4.62	5.10	5.72	4.12	17.77
	여	<i>M</i>	10.07	12.32	10.93	7.94	41.26
		<i>SD</i>	5.22	5.41	5.94	4.60	19.50
아동의 학년	5학년	<i>M</i>	9.17	10.90	9.37	6.86	36.31
		<i>SD</i>	5.27	5.64	6.12	4.36	19.79
	6학년	<i>M</i>	9.46	11.73	10.50	7.35	39.04
		<i>SD</i>	4.57	4.92	5.60	4.52	17.80
전체		<i>M</i>	9.30	11.26	9.87	7.08	37.51
		<i>SD</i>	4.97	5.34	5.91	4.43	18.96

표 3.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

구분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통제
대안적사고	.141 [*]	.114	.221 ^{**}
결과예측 사고	.093	.079	.211 ^{**}
원인적 사고	.138 [*]	.105	.245 ^{**}
수단-목적 사고	.007	.056	.180 [*]
대인문제 해결능력(전체)	.108	.098	.236 ^{**}

^{*} $p < .05$, ^{**} $p < .01$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는 아동의 대안적 사고, 원인적 사고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위적 통제는 대인문제 해결능력 및 그 하위사고들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은 대인문

제 해결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위사고들과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통제유형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상관이 아동의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아동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향은 대

표 4.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성별아동의 대인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

구분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통제	
남아	대안적사고	.249**	.099	.268**
	결과예측 사고	.210 ^ˆ	.056	.210 ^ˆ
	원인적 사고	.238**	.123	.275**
	수단-목적 사고	.060	.073	.198 ^ˆ
	대인문제 해결능력(전체)	.215 ^ˆ	.098	.264**
여아	대안적사고	.064	.103	.145
	결과예측 사고	.007	.068	.176 ^ˆ
	원인적 사고	.065 ^ˆ	.053	.178 ^ˆ
	수단-목적 사고	-.010	.001	.123
	대인문제 해결능력(전체)	.036	.063	.171 ^ˆ

^{*} $p < .05$, ^{**} $p < .01$

체로 유사하나 아동의 성차에 따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아동의 대안적 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인성적 통제는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모든 하위 사고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가 아동의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문제 해결능력에도 정적 상관($r=.171$)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명령적 통제와 지위적 통제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4에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남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상관을 살펴보았으나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회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대안적 사고와 수단-목적 사고의 해결방안수를 긍정적 해결방안수와 부정적 해결방안수로 나누어 아버지의 언어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아버지

의 명령적 통제와 대안적 사고 부정적 해결방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는 대안적 사고 긍정적 해결방안과 수단-목적 사고 긍정적 해결방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가 대안적 사고 긍정적 해결방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와 인성적 통제는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명령적 통제는 대안적 사고의 부정적 해결방안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인성적 통제는 긍정적 해결방안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요약 및 논의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중 명령적 통제점수가 다른 유형들의 점수에 비해 낮았고, 지위적 통제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 5.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성별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긍정-부정 방안수의 상관관계

구분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통제
남아	대안적 사고(긍정)	.090	.121	.243**
	대안적 사고(부정)	.281**	.031	.163
	수단-목적 사고(긍정)	-.002	.070	.195 ⁺
	수단-목적 사고(부정)	.089	.044	.115
여아	대안적 사고(긍정)	.043	.125	.180 ⁺
	대안적 사고(부정)	.060	.049	.064
	수단-목적 사고(긍정)	-.032	.013	.097
	수단-목적 사고(부정)	.013	.013	.094

* $p<.05$, ** $p<.01$

문화권의 특성이 언어통제유형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Bearison & Casell, 1975), 우리 문화권의 사회구조적 체계가 지위지향적 체계에 가깝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역할과 책임영역이 엄격히 구분되고 그러한 규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위적 통제가 많이 행사된 것이라 사료된다(이경희, 1993).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인성적 언어통제는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아가 인성적 통제를 더욱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활동적이며 다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Cameron, 1978; Moss, 1967; Thomas & Chess, 1977), 부모의 지도나 훈육에 더 반항적(Maccoby, 1980)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버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남아보다 비교적 통제하기 쉬운 여아에게 더 많은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기대하는 아동의 상이 성별에 따라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부모가 기대하는 상이 다르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방식이 다를 수 있고(Dedvereux, Bronfenbrenner & Rodgers, 1969; Rothbarth & Maccoby, 1966), 그 때문에 자녀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이며 다른 언어통제유형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 아버지의 인성적 언어통제에는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를 더욱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아동후기 연령이 낮을 때, 아버지는 아동의 행동에 개인의 의도를 고려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해석상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사고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결과예측 사고였으며,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은 수단-목적 사고였다. 그리고 대인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친구일 때 가장 많은 해결방안을 보였고, 상대가 교사일 때 가장 적은 해결방안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 반응수가 또래집단인 친구보다 성인 즉, 어머니, 교사의 반응수가 적었다고 밝힌 여러 연구(Eisenberg, Nundy & Roth, 1985; Sullivan, 1953; Youniss, 1980; 박찬옥, 1986; 오화심, 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되지만, 대상이 아동인 경우는 서로 동등한 위치이므로 보다 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 새로운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각 하위사고들에서도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문제 해결능력 전체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는데, Selman 등(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의 대인간 협상전략을 평가하였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인간 협상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별에 따른 훈육의 특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성인(특히 어머니)의 문제 해결방법을 관찰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대인문제 상황에서 더 많은 해결방안을 가질 수 있었다고 추론된다.

하지만, 성별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무관하다고 밝힌 여러 연구들(Shure & Spivack, 1972; Shure, Newman & Silver, 1973; 김은희, 1990; 강성희, 1991)도 있어 성별에 따른 일관성이 없다. 이는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많은 추후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각 하위사고들에는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인문제 해결방안의 수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적 증가를 보이나 (Marsh, 1982; Ford, 1982; 박찬옥, 1986),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이를 1년으로 구분하여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와 대안적 사고, 원인적 사고,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성적 통제의 경우에는 대인문제 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각 하위사고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지위적 통제의 경우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아는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유형과 대인문제 해결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능력 각 하위 사고들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여아는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유형과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그리고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는 수

단-목적 사고를 제외한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사고(대안적 사고-부정적 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와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버지는 아동들에게 지위적 통제를 주로 사용하며 명령적 통제를 적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위적 통제가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위적 통제는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적게 사용되는 명령적 통제가 남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지위적 통제보다 빈도는 적으나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남아의 행동을 통제할 때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는 남녀 아동 모두에게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정적관계를 가짐으로써 Bernstein(1971)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인성적 통제는 아동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선택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령적 통제유형과 남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이 정적상관을 나타내는데, 명령적 통제유형이 아동의 감정조망, 사회적 능력, 내외통제성,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여러 연구들(나수진, 1996; 이점숙, 1990; 이경희, 1993; 서선주, 1988)과 차이가 있다. 이는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하위사고 중 대안적 사고와 수단-목적 사고의 해결방안수는 긍정적 방안수, 부정적 방안수로 구분되는데, 방안수를 나누지 않고 전체 해결방안수와 상관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대안적 사고와 수단-목적 사고의 해결방안수를 사회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긍정적 해결방안수와 부정적 해결방안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긍정-부정해결방안으로 구분한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는 대안적 사고의 부정적 방안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는 대안적 사고의 긍정적 방안, 수단-목적사고의 긍정적 방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는 대안적 사고의 긍정적 방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적이며(Maccoby & Jacklin, 1974), 여아에 비해 부모로부터 체벌을 포함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으므로(Becker, 1964; Rohner & Pettengilli, 1985) 남아가 부모의 명령적 통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리라 사료된다. 남아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대안적 사고의 부정적 방안수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은 부분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동일시한다. 아동기때 벌을 많이 사용하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양육되었던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 주어진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이거나 회피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오화심, 1994).

반면에 아버지가 인성적 통제를 할 경우,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어 포괄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인성적 통제유형은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긍정적 해결방안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은 여아보다는 남아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

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남아는 남성모델이 우월한 특권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아들은 차츰 아버지를 모방하고 아버지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언어통제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인성적 통제를 받는 아동은 자신감을 얻어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명령적 통제만 받은 아동은 대인문제 해결능력 특히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내는 능력인 대안적 사고에서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언어통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딸은 우선적으로 어머니를 동일시하지만, 차츰 권력있고 능력있는 남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아버지를 모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를 받게 되면,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하지만, 남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유사성과 유능함의 동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력은 확연히 감소하고 아버지의 영향력은 증대되지만, 여아는 유사성과 유능함의 동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Hetherington, 1965; 이경희, 1993), 남아보다는 여아가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중 지위적 언어통제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명령적 언어통제

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에게 인성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5학년 아동의 아버지가 6학년 아동의 아버지보다 인성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사고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결과예측 사고였고, 그 다음은 원인적 사고, 대안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 순이었다.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문제 해결능력 및 각 하위사고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셋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명령적 통제와 인성적 통제가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인성적 통제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넷째,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하위사고 중 대안적 사고와 수단-목적사고의 해결방안을 긍정적 해결방안, 부정적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살펴보았다. 남아는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대안적 사고의 부정적 방안이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인성적 통제유형과 대안적 사고의 긍정적 방안, 수단-목적 사고의 긍정적 방안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아는 인성적 통제유형과 대안적 사고의 긍정적 방안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거주하는 중산층으로 한정되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표집지역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대상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

비하므로 이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만을 살펴보았는데, 어머니를 포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그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연령층에 따라 사회적 문제 해결 사고가 다르다는 Spivack과 Shure(1974)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령층에 따른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 (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의 전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은 (199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1990).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수진 (1996).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1986).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선주 (1988).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화심 (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점숙 (1990).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아동의 감정조망과 단서활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계순 (1994).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sher, S. R. & Renshaw, P. D. (1983). Child's goals strategies for social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9(3), 353-374.
- Bearison, D. J., & Casell, J. Z. (1975). Cognitive decentration and social code: communicative effectiveness in young children from differing family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2, 29-36.
- Becker, W. (1964). Consequence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8-172.
- Bee, H. L. (1989). *The developing chi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ameron, J. R. (1978). Parental treatment, children temperament and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 Initial temperament, parental attitude, and the incidence and form of behavioral proble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 140-147.
- Devereux, E. C., Bronfenbrenner, U., & Rodgers, R. R. (1969). Child-Rearing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257-270.
- Eisenberg, H., Nundy, T., & Roth, K. (1985). Children's justification for their adult and peer directed compliant(prosocial and non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 Psychology*, 21(2), 325-331.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Hetherington, A. B. (1972). Perceived children attitudes of fathers and cognitive control in daught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11, 29-40.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ccoby, E. E., & Ja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 Marsh, D. T. (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107-118.
- Moss, H. A. (1967). Sex, age, and state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13, 19-36.
- Pellegrini, A. D.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253-264.
- Platt, J., Spivack, G., Altman, N., Altman, D., & Peizer, S. B. (1974). Adolescent problem solving thinking.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2, 787-793.
- Rohner, .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thbarth, M. K., & Maccoby, E. E. (1966).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ournal and social Psychology*, 4, 227-243.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elman, R. L., Bearfslee, W., Shultz, L. H., Krupa, M. & Podorefsky, D. (1986). Assessing adolescent I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Toward the intergration of structual and functional model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50-459.
- Shure, M. B., & Spivack, G. (1970). *Problem-solving capacity, social class and adjustment among nursey school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lantic City.
- Shure, M. B., Spivack, G., & Jaeger, M. (1971). Problem-solving thinking and adjustment among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 1791-1803.
- thinking, adjustment, and social class among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 Shure, M. B., Newman, S., & Silver, S. (1973). *Problem-solving thinking among adjusted, impulsive and inhibited Head Start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Shure, M. B., & Spivack, G. (1978). *Problem-solving techniques in childrear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Spivack, G., Platt, J. J., & Shure, M. B. (1976).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homas, A., & Chess, C.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 and Mazerl.
-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Su-Won Song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77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The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Questionnaire developed by Lee and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Scale developed by Pack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age. (2)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children's gender in terms of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y.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positive and negative solutions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Keywords: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Positive and Negative Solutions